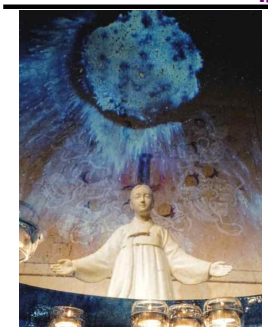

당고개 성지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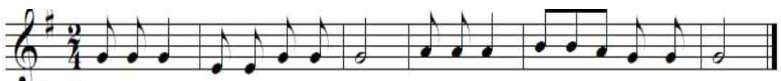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토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7,10-14

화답송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제2독서 로마 1,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마태 1,18-24

성가

입 당	97	예물준비	218
영성체	174	파견	91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학순	박혜화 도미니카
장흔 코르넬리우스 신부님	김성중 다두
양세양 요셉	이미숙 안나
한시찬 라파엘	연령회
한시찬 라파엘	가족
한시찬 라파엘	이미숙 안나
한시찬 라파엘	조남록, 조성자
김하용 베드로, 이재숙 카타리나	김시연 안젤라
김상님 요셉피나	신호균 안토니오 가족
배재철 안토니오, 안형균 세베리노	배옥희 소피아
남혜순 카타리나	이미숙 안나
고종호 마태오	조남록, 조성자
양세양 요셉	조남록, 조성자
이종환 토마스아퀴나스 기일	조남록, 조성자
남혜성 카타리나	조남록, 조성자
생미사	**봉헌**
김성웅 사도요한 생일축하	하늘처럼 성가대
이아녜스, 이아리아 첫영성체 축하	대모 로사 김
김 가롤로 신부님	김기례 레지나
김승애 클라라	울뜨레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2월 24일	이지훈	강호영	민덕미	민덕미	유정옥	한서희 최예준 김민규 양지수 김승현	
12월 25일	장혜윤	백승민	배수아	배수아	김영숙	한서희 최예준 김민규 양지수 김승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견진 교리	매주 주일 11:00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사랑의 음악회를 준비하며 '이루 말할수없이 우리를 도우신 하느님!'

수 입(후원 및 티켓, 성당자체후원) ..... $ 9,338
지 출(리셉션, 장비, 인쇄, 사례금 등) ..... $ 8,219
순수익 ..... $ 1,118

후원:고통받은 어린이들이 사는 과테말라 천사의 집... $ 1,000
잔 액 ..... $ 118

개인 및 단체 후원 $ 5,300
안영옥 익명 윤숙자 강호영 박기목 민완준 유정옥 이영애 이지훈 안선정 강혜숙 원조 큰집 연령회 뉴욕형제회

도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교무금

2022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맞게 금년도 교무금을 마무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교우분들의 협력으로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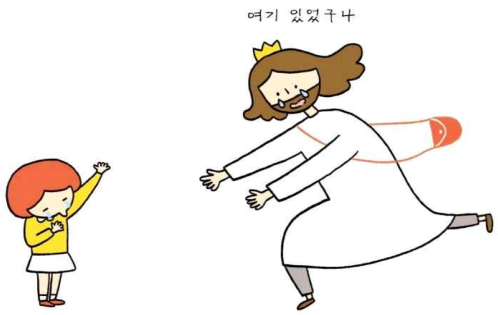
『대림시기 교우분들의 자세』

우리 마음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선행과 기도, 실천으로 대림시기를 지냅니다.

1.대림시기 고해성사

고해성사 장소: 월,화,수,목,금,토 13:30-16:30 신부님사무실
주일: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대림 시기 중에 이 성사를 통해 내 마음의 방인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도록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느님 사랑의 선물을 담으셔요♡



2.대림시기 공동실천 사항

1)대림시기부터 주일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시다. 다함께 성경말씀을 봉독하며 미사전 마음준비 합니다.
2)코리안 컨퍼런스룸은 소그룹 기도, 교육, 만남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날을 정해 대청소와 새단장을 하며, 방 사용후 꼭 뒷정리 합니다

성탄미사 안내

12/24(토) 20:00 주님 성탄대축일 밤미사
12/25(일) 09:15 주님 성탄대축일 낮미사

영원한 도시 이태리 로마 , 평화의 아씨시 성지순례

출 발: 2023년 6/18(일)저녁 도착: 6/23(금)오후
포함사항: 항공, 호텔 1급(2인1실) 1일 3식사, 전용버스, 인솔자, 현지 가이드, 바티칸 천지창조 박물관 입장 포함
신청마감: 1월10일까지 디파짓 $1500 나머지 출발 30일 전 완불
순례경비: $2600, 모든 신자와 가족들이 참여할수 있습니다.
코비드이후 항공 변동으로 인해 신속한 예약 부탁드립니다.
*주 최: 맨하탄성당 울뜨레아, 신청: 김미화 클레어 917-485-0530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하단의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 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A.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체크 보내실 주소 : Carolo Kim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B. 온라인으로 보내실 경우
은행명 : Chase Bank
수취인 :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Korean Ministry
Routing no / ABA no : 021000021
Checking Account no : 339500161165
은행주소: 1260 Broadway, New York, NY 10001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경희 미카엘라,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그 레고리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사랑의 편지
(마태 1,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마태 1,23) 곧 구세주,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임마누엘이신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모름지기 신앙인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마태 1,20-21)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마태 1,24)라고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임마누엘이신 하느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글을 묵상하시면서 임마누엘이신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내 인생의 회상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추어졌을 때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긴 세월 동안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단지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몹시 괴롭고 마음에 걸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단지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보배롭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단다. 네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보이는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메어리 스티븐슨)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곧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 상업 바오로 신부